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5.26.(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문화를 확산시키고 통일 문화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오늘 13시부터 내일 20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통일문화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봄'을 개최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장관도 오늘 13시 20분부터 개최되는 통하나봄 행사 개최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오늘 15시에는 광화문 씨네큐브 영화관에서 개최되는 '쇼츠영화제'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내일 18시 50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통일로가요' 결선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침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인권보고서 영문판에는 국문판과 달리 Disclaimer 페이지가 삽입됐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 기사 내용대로 저는 정부 보고서에 이런 면책 또는 면피조항 페이지가 들어간 것은 사실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어떤 warrant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문안이 들어갔는데 국문 페이지에는 있지도 않은, 차라리 국문에도 똑같이 넣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영문판에만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는 여쭙고요.

두 번째는 이 영문판의 번역 작업을 누가 수행... 어떤 외부 기관에 맡겨서 한 건지 아니면 통일부 직원이 한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인권기록보고서 영문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문판에도 관련 내용이 사실 상세히 기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하였고,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의 문화를 감안해서 영문판에서는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면책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서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하여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전문 인력을 통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영문판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통일부 내부의 통·번역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여서 보고서를 번역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